

지 상 법 석

번뇌 끊는 마음 더 중요

“거울은 먼지만 털면  
만물을 비추듯이  
하루 하루 반성하면  
자기 본성 나타나”

이러합니다. 보리는 우리들의 주체고 주인공이지 먼 번뇌라는 것은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날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 소나기가 오고 천둥이 치고 하는 현상이 오래 가지 못하고 날이 개이면 맑게 개이는 그런 현상처럼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번뇌에 가려서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 보면 우리가 가는 곳은 깨끗하고 구름 한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래를 내려다 보면 구름이 뒤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

이것은 모든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에도 '중생들에게 불지견(佛知見)을 보여서 청정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불지견을 보여 주기 위해서 오셨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이 세상 오신 뜻은 불지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참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부처님을 깨달아야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윤회에서 해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필경에는 그 외향이 부처님 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생사를 초월해서 대지혜와 대혜달을 통한 대자유를 얻어 마음대로 살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깨치기 전에는 영원히 생사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자성부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법문이고 그

하루 반성을 하고 수시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부처님이 하지말라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다 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끌라 잡은 구름이 일어나 해를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울 자체에 먼지가 앉아서 그 맑음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으뜸가는 근본교육인 가정교육의 부재 탓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게 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애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그 어느 교육 보다는 중요한 것입니다. 일만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 기만 한다면 제대로 나쁜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격정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서 격

람이 적은 것은 이 몸과 망심을 보배로 삼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모두 천당에 직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도 지옥에 같이 가고 권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 몸과 마음이 욕심으로 꽂아서 그것을 자기의 재물로 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범방경에 보면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주고 악한 일은 모두 자기에게 돌려라'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남을 존경해야지 나만 잘 살겠다고 해서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님이 되어 처음 배우는 초발심자 경문에 보면 '내가 아니다 하는 그 상이 무너지는 곳에 함이 없는 도가 스스로 일어나고, 부딪히지 않는 자에게는 만가지 복이 모두 날 위해서 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심이라는 공부는 정말 좋은 것이니 참신하고 열망하는 중에 '나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안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22

양 형 진

불생불멸

일체 사물 즉 일체법이 연기이며 무자성이라는 연기무자성공론이 용수보살이 확립한 중관사상의 근본이다. 이 중관사상은 부처님이 설한 중도사상을 계승한 것이요 후에 삼론종은 물론이고 천태종 화엄종 선종에 이르기 까지 여러 종파에 그 영향을 미쳤으니, 모든 불교 사상의 근본적인 교의가 된다고 하겠다. 중관사상에 관한 용수보살의 대표적인 논서가 중론(中論)이요, 이 중론의 맨 처음 귀경계에서 밝힌 내용이 팔발중도(八不中道)이다. 이 글에서는 이 팔발중도를 대표하며 반야사경에도 나오는 구절인 불생불멸(不生不滅)을 찰라생멸과 연관시켜 이야기해 보겠다. 연기와 무자성공 그리고 마음에 나타는 연기에 의한 객관 등에 대하여 이해한다고 하여도, 나에게 이러한 감각을 제공하는 객체는 실재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내 눈 앞에 보이는 객상이 실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에게 객상이라는 모습이 보일 것이며, 또 어떻게 객상이라는 관념이 생겨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일체의 존재자를 인연생기하는 무생한 존재로 보는 무상관이 근본 불교 이래의 기본적 교의라면, 위의 의문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라말이다' 라는 명제를 찰라생멸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확증을 시도하였다. 존재하는 것은 효과적 작용성을 말하므로, 작용은 한 순간에 즉 통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간격의 시간에 걸쳐 즉 계시적(繼時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존재자가 계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각 순간마다 그 본성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작용의 순간 전후에 다른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것도 영원한 작용일 수 없고, 또한 작용이 없는 것은 비존재를 의미하므로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체의 존재는 순간적인 존재라는 논증이 성립한다. 이제 현대 물리학의 입장을 살펴보자. 자연의 궁극적 구성물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끊임 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물리학은 그 실체를 하나하나 해명해가고 있다. 원자론에 의해 이 우주의 다양한 물질은 1백여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뒤이어 이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반지름은 10<sup>-15</sup>m 정도이다. 이것이 얼마나 작은 크기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양성자나 중

일체는 순간적 존재물...영원불변한 물체는 없어  
“양성자 속에 무수한 미립자 찰라생멸” 물리학 밝혀

가 된다. 이러한 의문은 인도 불교철학에서의 순간적 존재물 즉 찰라생멸의 논의와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찰라생멸이란 우리가 보는 사물이 언뜻 보기에는 순간순간 동일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매 순간마다 생멸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가 보는 한 순간 전의 존재와 한 순간 후의 존재는 이 생멸의 과정에서 의인과 결과 즉 인과로서 이어지는 서로 다른 두 사건이 된다. 그러나 순간적 존재에 관한 이 명제는 이미 그 자체가 우리 지각에 현현하는 것 배후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지각에 의해 확인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리학적으로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다. 이 논증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현대물리학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다소 까다로운 이 논증을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이 관심있는 분은 인도불교철학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만약 자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자가 있다면, 이 존재자는 다음 순간에 존속하게 되고 그 다음 순간에도 또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존재자는 영원히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사물은 한 순간 존재하고 사라지든지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든지의 두 가지의 양상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물의 중간적인 양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소중배척논증법(反所遺排非論證法)에서는 '존재하는 것은 찰

내 몸 낫추고 좋은자리 양보하는 자세 '깨달음의 길'  
“욕심비우고 남위해 살면 복받고 부처님 될수 있어”  
경전을 이정표로 삼아 수행...날마다 생활 달라져야

다. 선인들이 여기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특히 거울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거울이 있는데 깨끗할 때는 김씨가 오면 김씨를 비취주고 이씨가 오면 이씨를 비취주고 무엇이든지 앞에 오는 것은 그대로 다 비취주는 그런 힘이 거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울에 먼지가 겹겹이 앉게되면 비취주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비취주던 그 힘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울에 있는 먼지만 깨끗이 닦아주면 다시 옛날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비취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중생은 모두가 번뇌망상에 가려서 자기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번뇌의 구름이 활짝 개이게되면 우리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 제일의 목적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우리들로 하여금 본래 한분씩 모시고 있는 이 부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것 하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환상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 나올 때마다 깨달은 바가 있어서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향상되고 진취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나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무런 향상이 없으면 절에 나오나 마나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 감에 절대 이웃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동방 예외지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보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자존과라 하여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람죽이길 파리죽이는 것 보다 더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구동성으로 인간의 본성을 되찾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부처님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면 스스로 잘못된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과거에 익힌 버릇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심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법문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저 한마디라도 들을 실행하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도 내 마음이 시끄러워 집니다. 법화경의 상불경보살품의 상불경보살은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잘차 다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에 때문에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돌을 던지고 때렸 습니다. 그런데도 멀찍이 물러서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때를 맞아면서도 때리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하심을 해야 합니다. 내 몸을 낫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만 자신도 존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부처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복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정 하실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식에게 효도를 받으려면 부모가 먼저 효도 받을 일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을 윤바도 교육시키며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축원하는 모든 것이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문을 보면 '원컨대 이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같이 성불하여지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혼자하는 축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원효스님 법문에 보면 '막지도 않는 천당에는 가는 사

존 속 살해 세상  
가정 교육 부재 탓  
본래의 성품 찾기  
부처님께 발원해야

불교 성순 교지례

<b>백두산·연길·북경 5일</b> ·출발: 5월 3일, 6월 3일 ·동참금: 110만원 ·일정: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b>인도네시아 5일</b>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출발: 5월 7일, 6월 4일 ·동참금: 95만원	<b>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b> ·출발: 6월 3일 ·동참금: 188만원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름치-북경-서울
<b>스리랑카 6일</b>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출발: 4월 21일, 6월 2일 ·동참금: 118만원	<b>대만 5일</b> -불광사·화련·타이케이- ·출발: 5월 2일, 6월 5일 ·동참금: 65만원	<b>벵골·네팔 10일</b> ·출발: 4월 22일, 5월 27일 ·동참금: 230만원 ·일정: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제-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b>여행조건</b>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 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 인원: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b>국불교유적지 13일</b> ·출발: 5월 30일 ·동참금: 195만원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송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b>도·네팔·태국 10일</b> ·출발: 4월 21일 ·동참금: 150만원 ·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루시나르-롬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엠티) -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 사원)-서울

HVECHO ADVENTURE TOURS, LTD. **이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 (代)